

# ‘코로나 민중봉기’...세계 곳곳 시위·분신

### “봉쇄로 굶어죽겠다”

#### 인도·레바논·이라크 등서

#### 금지명령 어기고 항의시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에 따른 경제활동 중단으로 각지에서 분신과 시위가 속출, 사회불안과 소요 사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20일(미국동부 현지시간) 진단했다.

최근 인도, 레바논, 이라크에서는 이동·영업 제한과 집회 금지명령 등 당국의 강력한 방역 조치에도 크고 작은 시위가 벌어졌다. 지난주 뭄바이에서는 일감을 잃은 채오도 가도 못하게 된 이주 노동자 수만명이 사회적 거리두기 명령을 어기고 모여 당국에 항의했다. 외출금지령이 내려진 레바논에서도 베이루트와 트리폴리를 중심으로 민선고에 분노한 주민 시위가 세진 이상 벌어졌다. 이라크 남동부 나시리아와 바그다드 인근 사드르에서도 당국의 집회 금지명령을 깨고 소규모 시위가 일어났다.

감염병 확산 우려 탓에 지난해와 같은 조직적인 대규모 시위는 거의 없지만 길어지는 ‘코로나 봉쇄’에 따른 생활고에 좌절 한 주민의 분노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양상이다.

레바논에서 한 택시기사가 영업제한 위반으로 단속된 후 분노로 택시에 불을 놓는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확산했으며, 시리아 난민 가장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지 못한 채 절망해 분신한 채 내달리는 모습도 인터넷에 퍼져나갔다. 튀니지에서도 한 남성이 분신 사망한 사건이 보고됐다.

튀니지는 2011년 ‘아랍의 봄’ 민중봉기의 진원지로, 당시 단속을 당한 과일 노점상의 분신이 아랍권 도미노 혁명의 방아쇠를 당겼다.

세계노동기구(ILLO)에 따르면 날뿔팔이로 연명하는 노동자가 전 세계적으로 20억 명이 넘는다. 이들에게 일을 중단하는 것은 굶주림으로 직결된다. WP는 바그다드의 시장에서 특목(택시와 유사한 개조차량)을 모는 20세 청년 후세인 파케르가 일을 나갔다가 ‘코로나 통행금지’ 위반으로 벌금을 물리려는 경찰과 싸움까지 가게

된 사연을 소개했다. 파케르는 “굶어 죽거나 가족이 굶주리는 걸 보느니 바이러스로 죽는 게 낫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분노와 절망이 폭발한다면 아랍의 봄 봉기보다 훨씬 험하고 폭력적인 소요가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런던경제대(LSE)의 파와즈 게르게스 교수(국제관계학)는 “이것은 민주주의와 상관없는, 극도로 절망적인 빈곤으로 인한, 아사로 인한 것이 될 것”이라며, “그러한 사회적 분출이 동시다발로 일어날까 두렵다”고 말했다.

정치·사회적 배경에 차이가 있지만 미국

과 브라질에서도 ‘봉쇄 조치’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다. 전문가들은 주민을 강력하게 통제하는 중국에서도 ‘발원지’ 우한의 봉쇄가 해제된 후 주민들이 입대로 면제를 요구하는 시위가 있었던 점을 거론하며, 중국에서 2차, 3차 유행과 그에 따른 경제적 충격이 발생한다면 소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매사추세츠공대 슬로언경영대학원의 야성 황(龔亞生) 교수는 재유행이 일어날 경우 중국 주민의 반응은 당국에 대한 신뢰도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합뉴스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 시민들이 19일(현지시간) 주의회 의사당 앞에 모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자택 대피 명령에 반대하며 시위하고 있다. /연합뉴스

## 日코로나19 확진자 374명 늘어...1만1519명

### 격리환자 한국 3.9배

일본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는 19일 하루 동안 374명 늘었다고 현지 공영방송 NHK가 20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일본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호에 탔던 이들을 포함해 1만1519명이 됐다.

일본의 하루 신규 확진자는 15~18일 나흘 연속 500명을 웃돌다가 19일 300명대로 축소했다. 사망자는 14명 늘어 251명이 됐다. 확진자 중 증상이 개선해 퇴원한 이들은 18일 기준 1천713명이다.

일본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8일 한국보다 많아졌으며 이런 사실은 19일 한국의 확진자 공식 발표 후 명확해졌다. 한국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20일 0시 기준 한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는 전날 보다 13명 늘어난 1만674명이었다. 이로써 일본과 한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격차는 전날 484명에서 20일 845명으로 더 벌어졌다.

일본 정부는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호에서 나온 확진자를 자국 확진자와 별도로 집계하고 있다.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호 탑승자를 제외하더라도 일본의 확진자는 1만 807명이라서 한국의 누적 확진자보다 133명 많다. 19일 서울의 확진자가 47일만에 0명을 기록하는 등 한국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진정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일본은 도쿄에서 107명이 추가 확진되는 등 감염 확산이 이어지고 있다. 일본은 확진자 대다수가 격리 중이었지만 한국은 확진자 중 다수가 건강을 회복해 격리 생활을 끝냈다.

격리된 환자 수는 일본이 한국의 약 3.9배에 달한다. /연합뉴스

## 캐나다 최악 총기난사 경찰 등 16명 사망

### 용의자 12시간 도주끝 사살

소셜 ‘빨간머리 앤’의 무대인 캐나다 남동부 노바스코샤주(州)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주말 밤사이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져 최소 16명이 숨졌다고 AFP통신과 CNN방송이 19일(현지시간) 전했다.

이는 1989년 남동부 몬트리올의 에콜 폴리테크니크 대학에서 14명의 여학생이 총격에 희생된 이후 캐나다에서 31년 만에 발생한 최악의 총기 난사 사건이다.

용의자 가브리엘 워트먼(51)은 밤새 이어진 12시간의 도주 끝에 이날 오전 범행 현장인 포타피크 마을에서 다소 떨어진 엔필드의 한 화물자동차 휴게소에서 경찰이 쏜 총에 맞고 숨졌다. AP는 워트먼이 노바스코샤주에 등록된 치과공사로 확인됐다며, 경찰이 공개한 용의자 사진과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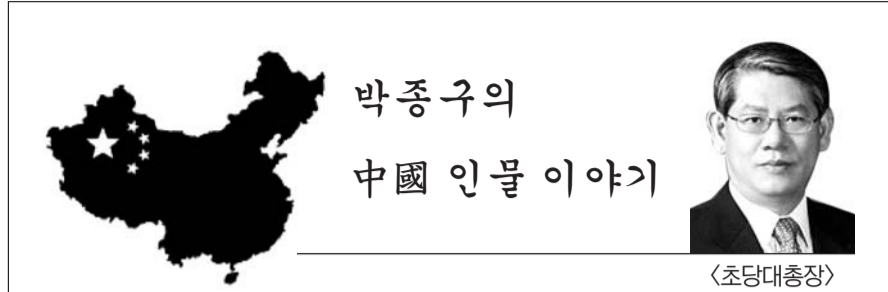
년 한 방송 인터뷰에서 틀니를 주제로 인터뷰한 인물이 동일하다고 보도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처음 신고가 접수된 시점은 전날 오후 10시 30분경으로 “총기를 소지한 사람이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연쇄적인 총기사건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워트먼은 범행 현장에서 경찰 제복을 입고 있었으며, 순찰차처럼 보이는 차를 몰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수의 사망자가 주택 한 곳의 안뜰에서 발견됐다. 희생자 중에는 두 아이의 어머니기도 한 23년 경력의 베테랑 경찰관 1명도 포함됐다. 다른 경찰관 1명도 총격에 부상했다.

쥘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이번 끔찍한 사건으로 피해를 본 모든 사람에게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박종우의  
中國 인물 이야기

〈초당대총장〉

### 〈229〉 채경

채경(蔡京, 1047~1126)의 자는 윈장(元長)으로 복건성 유현 출신이다. 북송의 마지막 황제 휘종의 재상으로 왕조의 멸망에 기여했다.

희녕 3년(1070) 진사시에 급제했다. 출세의 기회를 포착하는 역량이 뛰어나고 직감력과 변신하는 재주를 갖추었다. 왕조를 멸망시킨 ‘망국의 재상’으로 송사 간신전(姦臣傳)에 포함되어 있다. 양주지사, 항주지사 등을 역임한 그가 재상으로 기용된 것은 황태후의 급서, 환관 동관의 지지에 힘입은 바가 크다. 신종의 황후 상씨는 단왕 조길을 황제로 낙점했다. 일정기간 수렴정정을 거쳐 새 황제가 친정에 나서도록 할 계획이었는데 그녀가 급서해 일이 꼬였다. 경험이 일천한 휘종은 노

왕안석과는 달리 채경의 시책은 휘종의 개인 사치와 신법당의 권력 강화에 목적이 있었다. 차와 소금의 전매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강화했다. 차, 소금의 전매 증서를 마음대로 조작해 사복을 채웠다. 당시전(當十錢)이라는 질 낮은 화폐를 유통시켜 자신의 주머니를 채웠다. 도교 의식을 위한 건축물과 각종 궁전의 조성을 위해 엄청난 토목사업을 벌였다. 수도 개봉의 건축비용으로 엄청난 재목이 필요했다. 전국의 산림 훼손이 불가피했다. 인접한 산성에서만 40만주의 재목이 200척 이상의 배로 개봉으로 운송되었다.

요나라와 금나라와의 외교 관계가 크게 뒤물렸다. 1120년 금과 새로운 동맹정정을 거쳐 새 황제가 친정에 나서도록 할 계획이었는데 그녀가 급서해 일이 꼬였다. 경험이 일천한 휘종은 노

### 북송 멸망 일조한 ‘망국의 재상’

련한 관료가 필요했고 이에 부응한 것이 채경이었다. 환관 동관은 안광이 예리한 주객력의 인물로 휘종을 망국의 황제로 전락시켰다. 소주의 갑부인 주충도 채경의 든든한 후원자였다. 주충과 그의 아들 주면이 강남의 각종 물자를 수도 개봉으로 공급한 주역이었다.

채경은 뛰어난 서예가였다. 소림사 등에 글씨가 남아 있을 정도로 미술에 대한 안목이 뛰어났다. 재상 채경은 신법을 부활시켰다. 철종때 폐지된 면역법을 부활시켰다. 방전군세법(方田均稅法)을 집행해 대지주가 숨겨둔 토지를 찾아 추가 재원 확보에 공을 세웠다. 대지주가 타격을 받았다. 신법인 공전법(公田法)을 도입해 증세에 나섰다. 전답을 측정하는 제도를 고쳐 토지 1무(畝)가 넘는 것은 공전으로 몰수했다. 약 8퍼센트 상당의 땅을 빼앗았다.

강남의 돌, 바위, 석화 등에 탐닉한 휘종의 뜻에 맞추기 위해 백성을 쥐어 찼다. 주면의 도움으로 강남의 진귀 물품을 개봉으로 대량으로 옮겼다. 이를 화석강(花石綱)이라고 한다. 휘종은 도교에 깊이 빠졌다. 절강성 운주 출신의 도사 임영소가 크게 신임을 받아 동진달영선생이라는 칭호를 받았다. 그에게 도교의 교리를 궁중에서 강론케 했다. 도교 의식인 천도회(天道會)를 열어 많은 재정이 소진되었다.

태종은 이에 분노해 개봉을 공격했다. 연경을 방어한 곽약사가 금에 투항했다. 휘종이 퇴위하고 장남이 흠중으로 즉위했다. 채경은 국난을 초래한 육직(六賊)의 우두머리로 지목되어 해남도를 거쳐 호남성 장사로 유배되고 병사했다.

채경은 반대파인 구법당을 철저히 탄압했다. 원우당적비(元祐?籍碑)를 만들어 319명의 명단을 기록했다. 전국에 300개 이상을 세웠다. 구법당과 신법당의 당쟁이 망국을 가져왔는데 원우당적비는 그 백미라 할 수 있다.

철종때 재상 사마광의 명에 따라 면역법을 신속히 폐기했다. 개봉자사로 있었던 채경은 자신의 생각을 신속히 바꾸어 5일만에 제도를 갈아치웠다. 채경의 신속한 행동으로 “전국의 장관들이 모두 채경과 같다면 무엇이든 못할 것이 없다”는 말이 회자되었다.

양주 자사로 재직 중 어느 여름 8인의 손님을 초청해 찬 음식을 접대했다. 우연찮게 이곳을 방문한 고관들이 방문해 연회객이 무려 40명으로 늘었다. 채경은 순식간에 40명분의 음식을 장만해 그들을 대접했다. 그의 뛰어난 재주를 보여주는 일화다.

“지난 날을 돌아보니 영화가 모두 허무하네. 이제와 돌아보니 한바탕 꿈이더라.” 채경이 답주로 유배갈 때 노래한 시의 한 구절이다.

고의사고! 허위원인! 허위청구! 과잉진료! 확대수리

## 한 사람의 보험범죄 전국민의 경제부담

2016년 9월 30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날로 지능화되는 보험사기에 늘어나는 국민손실, 보험사기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보험사기, 반드시 적발됩니다.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MG손해보험
 Heungkuk Fire & Marine Insurance
 삼성화재
 현대에상
 KB손해보험
 동부화재
 KOREAN RE
 SGI서울보증
 AXA
 AIG
 The K 손해보험
 NH손해보험